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민극가 스테파노 (1788-1840)



민극가는 인천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가족이 모두 외교인이었으나, 어머니가 사망한 뒤 아버지가 중년에 이르러 온 가족이 함께 입교하였다. 민극가는 20세 때 아내를 잃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재혼해 딸 하나를 두었는데, 6, 7년 뒤 재혼한 아내와 딸마저 잃게 되었다. 이후, 집을 떠나 서울과 경기 지역을 다니며 천주교 서적을 팔아 생활하였다. 또한 어디서나 외교인들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고 자선 사업에도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래서 결국 회장에 임명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 주교와 신부들이 체포되자, 민극가는 서울과 지방의 교우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등 회장의 직무를 열심히 이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그도 서울 근교에서 체포되었다. 포청에서 온갖 방법으로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모든 위협과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다. 그리고 배교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교우들에게 신앙을 권면함으로써 그들 중 여럿이 다시 신앙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옥에서도 회장의 본분을 다한 민극가는 1840년 1월 30일, 포청에서 교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53세였다.

성화_김중은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사순 제4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이사 66,10-11 참조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2역대 36,14-16.19-23

화답송 시편 137(136),1-2.3.4-5.6(6ㄴㄹ)

- ◎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바빌론 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그리며 눈물짓노라. 그 언덕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비파를 걸었노라. ◎
-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하는구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올려대는구나. “시온의 노래를 불러라. 우리에게 한 가락 불러 보아라.” ◎
- 우리 어찌 남의 나라 낯선 땅에서 주님의 노래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굳어 버

리리라. ◎

- 내가 만일 예루살렘 너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를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으리라. ◎

제2독서 에페 2,4-10

복음 환호송 요한 3,16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복음 요한 3,1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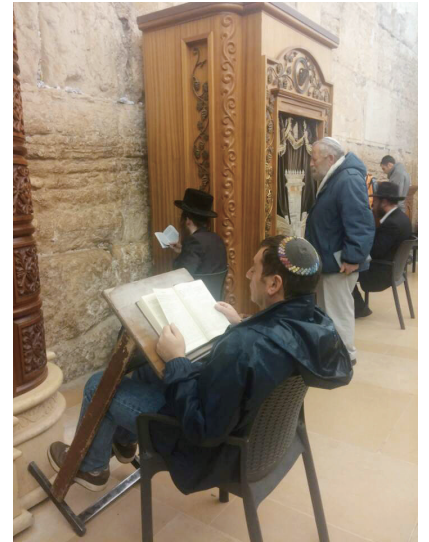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22(121),3-4 참조

예루살렘은 튼튼한 도성, 견고하게 세워졌나이다.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나이다.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러 올라가나이다.

통곡의 벽



유다인의 성인식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유대인

유다교의 최고 성지는 단연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늘 붐비지만, 성인식을 치르는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더 떠들썩해 집니다. 여자아이는 만 12세부터, 남자아이는 13세부터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성인이 됩니다. 이날, 가족과 친지들은 사탕을 던지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기뻐합니다. 성인식을 통곡의 벽에서 하는 건, 과거 그 위 모리아산에 성전이 자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 위의 성전을 마지막으로 보수한 이는 2,000년 전 헤로데 임금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을 평평하게 깎아 500미터 길이의 광장으로 만든 뒤, 그 위에 성전을 개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소굴로 변질된 성전을 꾸짖으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고 예고하신 대로, 기원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는 열혈당원들의 반란을 진압하며 징벌 차원으로 성전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명성황후 시해나 숭례문 화재 사건에서 우리가 느낀,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모리아산에는 성전을 받치던 바깥벽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서쪽 벽이 바로 통곡의 벽입니다. 유대인들이 유독 서쪽 벽을 성지로 삼아 기도하는 건, 그 벽이 성전의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인 데다, 솔로몬 임금이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1열왕 8,30)라고 하느님께 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은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심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이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슬러 일으킨 제2차 반란 사건(132-1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후 66년 발발한 열혈당원들의 반란 뒤, 132년에는 바르 코흐바 혁명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연이어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분노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재위 117-138년)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내쫓았습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성전파괴일인 아브 월 9일에만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서쪽 벽을 붙들고 밤새 통곡하다가, 이튿날 울며 그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성전이 무너지던 날 그 벽이 이슬에 젖어 마치 우는 것처럼 보였다고도 합니다. 다만 불과 60년 전만 해도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에게 ‘화중지병(畫中之餅) 곧 그림의 떡과 같았는데, 그때는 동-예루살렘이 요르단의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1967년 일어난 6일 전쟁 뒤에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통합(?)에 성공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몸을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을 보고는, 줄면 안 돼 몸을 흔든다는 둥, 몸을 흔들어 기도를 바치면 두 배가 되기 때문이라는 둥 재미있게 추측하곤 하지만, 사실 이는 온몸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려는 몸짓입니다. 기도한 뒤에는 주님께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나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볼 때면, 성전 건물은 외형에 불과할 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데는 거창한 무엇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② - 인간관계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톨릭 사회 가르침(교리)은 사회 현안에 대한 성찰 원리, 판단 기준, 행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인간 존엄과 공동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 최-우 선성을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런 구성에 따라,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제1장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에서 사회 현안들 가운데 특히 참된 평화를 위협하는 인간관계의 훼손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제2장(56-86항)에서는 그 어둠을 밝힐 빛을 복음과 전승에서, 제3·4·5장에서는 이성과 경험에서 그 빛을 찾습니다. 끝으로, 제6·7·8장에서는 몇 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56항 참조).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는, 루카 10장에 나오는 ‘가장 큰 계명’(25-28절)과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29-37절)를 통해 건전한 인간관계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문맥(context, 57-62항), ② 길에 버려진 사람(63-68항), ③ 끊임없이 다른 형식으로 듣는 이야기(69-71항), ④ 이야기의 등장인물(72-76항), ⑤ 새로 시작하기(77-79항), ⑥ 국경 없는 이웃(80-83항), ⑦ 낯선 이의 탄원(84-86항).

먼저, 복음과 전승의 ‘문맥’에 대해 말하는데, 그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관계라는 현안은 세상(인간) 창조 때부터 시작하여 “세월을 거쳐 내려온 문제”입

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서는 혈육의 살해는 물론이고, 결정론(決定論)이나 운명론(運命論) 따위에 기대 ‘혈육에 대한 무관심’도 용인하지 않습니다(창세 4,8-9 참조). 대신, “우리의 분쟁을 해결해서 서로를 돌보는 특별한 문화를 창조하라고 격려하십니다”(57항). 둘째, 서로를 돌보는 문화의 토대는 하느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생명과 존엄 그리고 그 존엄에서 나온 공동의 권리인 공동선입니다(58항 참조). 셋째, 동료 구성원 또는 가장 가까운 이에게만 적용되었던 사랑과 돌봄은 점차 ‘누구나’에게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합니다(이웃 사랑의 보편성, 59-60항 참조). 넷째, “고립된 폐쇄 집단 형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 사랑과 돌봄엔 반드시 사회적 약자와 낯선 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61-62항 참조).

“[성경과 전승의] 이런 문맥에서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갖는 의미심장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나 자매가 어디에서 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갈라놓는 사슬을 산산이 부수고 그 자리에 다리를 놓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의 위대한 가족을 만들 수 있게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모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랑은 동정(同情)과 존엄을 발산시킵니다”(62항). 🌟

어둠 속 빛이신 그리스도



프란치스코 고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1780년, 캔버스에 유채, 253x153cm, 프라도 박물관, 스페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암흑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삼켜버릴 듯 위협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절하게 절규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이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을 강렬하게 표현한 이는 스페인 출신의 프란치스코 고야(Francisco Goya, 1746-1828)입니다. 그는 18세기 말 기존의 왕정 시대가 끝나고 맞은 근대 대격변기에 등장한 화가로서 17세기 디에고 벨라스케즈(Diego Velasquez), 20세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와 함께 스페인이 자랑하는 3대 거장 중 한 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최고의 걸작들이 모인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780년, 34세가 된 고야가 ‘산 페르난도 왕립 아카데미’(예술원) 회원이 되고자 출품해 만장일치를 얻은 걸작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표현은 수 세기가 지난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은 복음의 한 대목을 표현한 것입니다: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고 부르짖으셨다.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마태 27,45-46).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설파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기심을 거슬러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주위를 밝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나약한 ‘어린 양’이 되어 가장 보잘것없고 비천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 자신이 ‘사랑’이 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절규는, 그분이 신성(神性)을 지니셨지만 동시에 인간적 본성도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느끼셨을 깊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인정이나 보상은커녕 온갖 수모만을 받으며 무모한 희생을 선택한 그분의 사랑 또한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직면하는 온갖 난관, 억울함, 고통이라 한들 이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진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받을 뿐입니다.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낮추셨기에 오히려 눈부시게 빛나는 그리스도. 마치 몸 안에서부터 작은 등불을 비추어 내듯 은은하게 배어 나오는 빛을 품은, 아니 ‘영원한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 한때 긍정화가로 최고의 명예를 누리던 고야가 ‘영원한 빛’을 표현해낼 수 있었던 건 그 자신이 암흑의 수렁에서 진실의 빛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부족하기만 한 마음에 등불 하나를 품고 싶습니다. 어떤 풍파에도 꺼지지 않고 밝은 빛을 내는 작은 등불 말입니다. ☺

미사 · 피정 ▶▶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and Mass (빵 미사)

일시: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https://linktr.ee/epiphania.c>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신심 묵상회

일시: 3/18~4/22, 매주(월) 09:20~12:30

장소: 일산 성당

일정: 1주-소개강의 및 세속정신 끊기

2주-세속정신 끊기 / 3주-자기자신 알기

4주-성모님 알고 사랑하기

5주-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기

6주-봉헌의 생활화

회비: 2만원 (교재 별도 구입)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매달 첫째요일 신심 피정: 4/6(토)

매주 목요일 피정: 10시~14시 / 강사: 이한택 주교

파티마 성모님 발현 기념 피정:

3/13(수) 10시~14시 미사

문의: 031-952-6324 파티마 평화의 성당

왜관수도원 - 박 블라시오 아바스와 함께

1차: 5/1(수) 15시 ~ 2(목) 13시

2차: 5/15(수) 15시 ~ 16(목)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 집

회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문자) [접수 후 입금]

부부나들이 피정

일시: 5/25(토) 14시 ~ 26(주일) 17시, 아론의 집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회비: 20만원 (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신청 131-022-218086 가정선교회

(입금 후 연락)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고영민 부회장)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엄마와 딸(미혼)피정: 3/23(토)~24(주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4/12(금)~14(주일)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65세 이상):

4/24(수)~5/3(금)

품 그리기(자녀 사별 프로그램 10주간)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예수수도회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3/22(금)~24(주일) [2박 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2일: 4/27(토)~28(주일), 5/11(토)~12(주일)

3박4일: 4/4(목)~7(주일)

4박5일: 5/27(월)~31(금)

8박9일: 3/14(목)~22(금), 4/15(월)~23(화)

40일: 4/11(목)~5/20(월)

장소: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안내

일시: 3/15(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옴을 통한 하느님 체험(성경속 인물에 관한 영성2)

강사: 최황진 라파엘 신부(수원교구)

문의: 010-2127-0032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개방의 날 무료 피정: 매월 첫 금요일

4/5(금), 5/3(금) 10시~15:30

수요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내 300주년 기념 경당

사순 피정: 3/12, 19 매주(화)

단식 피정: 3/20(수)~24(주일) [4박 5일]

장소: 서울 명상의 집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청주교구 철야기도

일시: 매주(금) 20시~01시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강사: 전국 유명강사 /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명동가톨릭회관 7층

강사: 3/12(화) 양종석 베다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edoran

제15기 의정부교구 도시농부학교

기간: 3/16~10/19, 매주(토)

수업료: 17만원 (실습발 분양비 포함)

접수: 3/10(주일)까지 / 인량: 20명

문의: 031-850-1492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 입양 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 음악원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예비자 통신교리 - 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주소: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기도하며 기도를 배웁시다 성체조배 봄 영성교육

일시: 3/20, 27, 4/3, 17, 24 (매주 수요일)

장소: 명동성당 영성센터 B201호 / 회비: 5만원

강사: 서울대교구 지도사제단

문의: 02-773-3030 서울대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입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3/16(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성북구 선잠로9-6)	010-8573-0567
	한국외방선교회	4/7(주일) 11시	성북동 본부	010-8715-2846
	살레시오회	매월 넷째 토요일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3/16(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향동 성당 사무직(계약직) 모집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시설 관리
근무: 주 20~30시간 협의
접수: 3/15(금)까지 우편 접수
※ 자세한 내용 교구 홈페이지 참조

성안베르센터 피정의 집(구파발) 직원 모집

인원: 미화원 2명 (미화·숙소관리 등)
방호원 1명 (전기, 소방 자격증 우대)
절재: 1차 서류, 2차 면접 (개별통보)
접수: 3/27(수)까지
서류: 입사지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적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추천서
문의: imbert@seoul.catholic.kr

신앙생활에 관한 비대면 신앙교육 - ZOOM

일시: 3/13(수) 20시 [매주(수) 10주간]
교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자 직강)
신청: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chusimon60@gmail.com

자원봉사자 모집 - 치위생사

인원: 치위생사 2명
일시: 매주일 13시~17시 (총 4명의 봉사자 월1회 봉사)
장소: 파주엑소더스 치과진료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직장인저녁반 단원 모집

대상: 50세 이상 누구나 (오디션 면제 기간)
일시: 매주(수) 19시~20:30
장소: 모니카합창연습실 (서강대역)
지휘: 이상희 모니카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단장

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청년제자훈련

일시: 3/16(토) 14시 오리엔테이션 [1년 과정]
장소: 합정동 ICPE선교회 센터
문의: 010-5646-6594

파주 엑소더스 한국어 교실 자원 봉사자 모집

인원: 1명 (한국어교실교원자격증 보유)
일시: 매주일 14시~17시
장소: 파주엑소더스 한국어교실 (조리음 송비말길 79-39)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전문의 초빙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중독연구재단』 산하 병원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독 치료 경력 및 학위자 우대)
문의: 031-810-9062, mleim@karf.or.kr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후원회 담당 직원 모집

인원: 1명,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교우,
사무행정·회계업무·PC(한글·엑셀·PPT)
사용 가능한 분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관구
(덕양구 삼막2길 16)
접수: 3/23(금)까지 / 문의: 02-379-8071

운정 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대상: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교중미사 반주 경험자)
미사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문의: 010-5858-4257 성가대 단장

제41기 복음화학교 개강

교 구 청: 3/13(수) 11시 010-7344-1272
옥정 성당: 3/13(수) 20시 010-8966-6525
덕소 성당: 3/14(목) 11시 010-8966-6525
마두동성당: 4/2(화) 11시 010-9023-5380

주교좌 의정부 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정기모집

대상: 의정부교구 만 55세 미만 신자
오디션: 성가 1곡
연습: 매주(목) 20시, 매주일 교중미사 전
문의: 010-6802-8014 단장, 010-4231-8918 총무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자연순례: 5/14(화)~16(목), 5/27(월)~29(수),
6/10(월)~12(수)
성지순례: 4/13(토)~16(화), 4/25(목)~28(주일),
5/2(목)~5(주일), 5/8(수)~11(토),
5/19(주일)~22(수)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가톨릭여행사 해외성지순례

4/15(월) 메주고리에, 발칸3국, 헝가리 (12일)
4/23(화)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12(주일)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13(월) 동유럽 5개국 (12일)
5/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6/3(월) 중부 유럽 4개국 수도원 순례 (11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www.catholictravel.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5/17(금)~29(수) 튀르키예, 그리스 (470만원)
5/30(목)~6/10(월) 유럽 성모발현지 (545만원)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9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5/7(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타마 (13일, 560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5/2(목)~4(토), 5/6(월)~8(수),
5/17(금)~19(주일), 5/22(수)~24(금),
6/1(토)~3(월)
추자도 포함: 5/26(주일)~29(수)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이야기

날짜: 5/23(목)~25(토) 성모의 밤, 6/19(수)~21(금)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구반장 맞춤형 피정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한티 가는 길 - 도보순례

2차: 4/10(수)~12(금), 3차: 5/6(월)~8(수)
4차: 6/6(목)~8(토), 5차: 9/25(수)~27(금)
6차: 10/10(목)~12(토), 7차: 11/25(월)~27(수)
장소: 왜관수도원 피정의 집, 연화리 피정의 집(3차, 4차)
회비: 25만원 (2박 3일)
문의: 010-6791-0071

[담화] 정부와 의료계에 열린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에 열린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기쁨과 희망의 장미 주일



오늘 사순 제4주일 미사에서 사제는 장미(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장미색 제의는 1년에 두 번, 대림 제3주일과 사순 제4주일에만 입는데, 제의 색깔에서 유래해 이날을 “장미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림 제3주일의 입당송은 “기뻐하여라”(Gaudate)로, 사순 제4주일의 입당송은 “즐거워하여라”(Laetare)로 시작되기에, 각각 [가우다테](Gaudate) 주일과 [레타레](Laetare)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미색에는 대림시기의 기다림 또는 사순시기의 재계 속에서 지치고 힘든 신자들에게 기쁨을 미리 맛보고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미사의 고유 기도문은 ‘기쁨과 희망’이라는 사순 제4주일의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본기도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예물기도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약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소서.”

한편, 사순시기는 파스카 성야에 세례를 받을 예비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여정에서 막바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또는 그 이상 세례를 준비해 온 예비 신자들은 사순 제1주일에 선발 예식을 치르고, 사순 제3·4·5주일에는 수련식을 갖습니다. 이때, 성경과 신경(信經)과 주님의 기도가 수여되는데, 이로써 그들은 세례 성사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순 제4주일에,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들을 얻게 된다는 기쁨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재위 1198-1216년)는 “사순 제4주일의 기쁨이란 사순시기의 엄격한 단식에서 벗어나서가 아니라, 세례자들이 증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순 제4주일, 장미 주일은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결심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는 굳게 다짐했던 일이 작심삼일로 그치지 않는지, 바쁜 삶에 쫓겨 아무 생각 없이 사순시기를 흘려보낸 건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추스르고 남은 사순시기를 더욱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지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쁨과 희망을 간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주간과 파스카 성삼일을 준비하도록 합시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전례

■ 사순 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에 있습니다.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전대사 미사

일 시: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 성삼일 전례 안내

3월 28일(목)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오후 8시	성목요일 미사, 현양제대 수난 감실 조배
3월 29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전례 (성지복구 특별헌금)
3월 30일 (토) 파스카 성야	오후 8시	부활 성야 미사

※3월 30일 주님 부활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봉헌 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본당공지

■ 부활 판공 성사

부활 판공 성사는 사순기간 동안 보시고 성사표를 고백소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사무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 연례 피정

본당 신부님께서 3월 18일(월)부터 23일(토)까지 교구 사제 연례 피정에 참석하십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3월 10일	주송자	오정화(아네스)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3월 17일	주송자	신은석(안젤라)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우리들의 정성 (2월 26일 ~ 3월 5일)

■ 교무금, 주일헌금, 2차헌금

교 무 금 8 건 1,080,000원
주 일 헌 금 983,000원

■ 감사헌금

홍인모 100,000원 백경미 50,000원
박서아 300,000원

■ 단체별 수난 감실 조배 순서

시간	단체	시간	단체
22시-24시	성가대	06시-08시	3구역
24시-02시	운영위원회	08시-10시	4구역
02시-04시	1구역	10시-12시	레지오
04시-06시	2구역	12-15시	자유롭게